

의 사업, 한국기업과의 활동을 저희는 추진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자 라고 본사를 향해서 저희는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역풍을 맞고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일은 윈윈의 관계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영향은 한국기업 종업원에게도 또 관련되는 한국기업에도 나오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윈윈이 아니라 루즈 루즈의 상황입니다. 저희의 희망은 정상화입니다. 첫째도 정상화, 둘째도 셋째도 정상화입니다. 모두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사고 싶은 걸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번 달 1일에서 서울에서 있었던 한일축제 한마당의 사진입니다. 객석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을 했습니다. 행사장 가득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초상권 문제로 얼굴에 약간 뿌연게 해서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요. 사실 학생들 눈을 반짝거리면서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일본은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사이의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노 코리아, 노 재팬'이 아닙니다. 이 행사에는 한일양국의 저명한 정치인, 관료도 참석하셨고, 모두 같은 목소리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고, 한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양국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에 한국친구들은 한국사람들도 결코 지금의 상황이 좋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발해달라, 격려해주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의 바람, 희망은 양국간의 관계개선이며 정상화입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 제가 부탁이라

고 할까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정부간의 대화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계속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장제국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어떤 회의에서 한국은 신뢰를, 일본은 예의를 잃었다 라는 참석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치단체 교류중단발표, 또 불매운동은 마이너스 영향밖에 끼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생각이라면 둘째 치고 자치단체가 술선수범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SJC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미쓰이물산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30년 이상 상사에서 근무했던 저 개인의 의견을 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외국기업과 정부기관과 일을 해온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기업과의 관계는 계약을 판단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 그리고 국내 사정을 전면에 내도 입장 차이를 메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차치하고 먼저 양국간에 존재하는 조약에 따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즈니스는 일단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계약에 따라서 사무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뭔가 수정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한 이견이 있다면 규정에 적혀있는 절차에 따라서 협상을 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시 또 SJC 이사장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앞을 향해서 한국기업과 협력하면서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염재호) : 모리야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서울재팬클럽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미쓰이물산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도 저하되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노동조합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정치까지 더해져서 이게 양국의 국가 리스크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사가 갈 수도 없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관계를 더 강화할 것인가. 오늘 네 분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당위론적으로 두 나라는 협력을 하는 것이 참 좋다, 그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스탠포드에서 일본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일본의 산업정책을 연구해야겠다고 해서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게 됐을 때도 한 일관제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일본 동경에서 회의를 참석하면서 통계를 봤더니 한국사람 중에서 일본을 한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한 80%가 되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 한국을 한번도 안 와본 사람이 80%가 된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한번 한국사람이 일본을 가고 한번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면 반복해서 1년에도 몇 번씩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것이 한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8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너무 모르고 관념적으로 양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적교류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특히 저는 일본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일본정부가 한국학자들 중에서 일본연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비도 지원했지만 지금은 한국도 잘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준다 라고 해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문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학도 요즘은 가고는 있지만 과연 이런 것을 경제계나 이런 데서 서포트 해줄 수 없을까. 외무성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제3국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운 회장님 계십니다마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와세대 대학교하고 게이요대학교가 10년 이상 '밀레니엄 포럼'이라고 해서 총장님들이 각 학교를 왔다갔다하면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사회 각 분야 별로, 예를 들면 기업은 기업끼리라도 이런 공동의 터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가 동일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같은 것을 오히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앞장서서 어젠더를 제안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전에 친한 일본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을 같이 투자를 하고 하는 것에서만 생각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전세계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것을 같이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컨슈머의 입장에서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걸 찾아보려면 21세기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지금 한일경제인협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회의를 통해서나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계신데,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한 30~40분 저희들이 토론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분은 베트남이나 제3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각자하고 있는데 정말 둘이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냐. 혹시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러한 곳에서 투자할 때도 같이 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두 분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제국 총장님하고 모리야마 이사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SJC회원사들이 느끼는, 어느 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전망은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다른 차원에서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을 서포트를 하면 좋을지, 또 장 총장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부산하고 후쿠오카 공동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또 대학을 맡고 계시니까 특히 동서대학에서는 일본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협력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우광 이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토론 & 질의응답)

이우광
주식회사 농심 사외이사

굉장히 이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서플라이 체인이 바뀐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

에 진출한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한국에서 만들 때에 구체적인 비즈니스를 일본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재 부품을 수출을 해왔거나 아니면 현지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장비를 파나이나 이랬었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대량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소재부품업체가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제조장비도 예를 들어서 파나이 직접적으로, 파나이 최근 에 보면 베트남 수출이 많아요. 그러면 베트남 자체의 어떤 산업보다는 삼성전자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기업들 간의 협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협회나 이런 데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서플라이 체인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하는 건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차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서플라이 체인이 왕성하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인프라, 특히 인력이 문제인데, 한국이나 일본은-일본은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국도 최근 들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들을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까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4차산업 혁명에서의 AI의 중요성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물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베트남이나 소위 이야기하는 개도국에서의 어떤 추진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습시다마는 그런 인력들을 개별기업이 인력을 전문인력이랄까 노동인력을

양성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양국기업이 인력 양성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없을까? 그를 위해서는 어떤 협회나 정부 사이드에서 지원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두 번째는 일본, 한국, 중국이 환경문제로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장시간에 걸쳐서 경험을 했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양국기업 간에 협력 내지는 정부의 어떤 도움, 이런 걸로 인해서 베트남 자체를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 만들기, 이런 차원으로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장(염재호) : 고맙습니다. 사실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있다 라고 아까 무꼬야마 선생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제3국으로 가면서 유지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한국이 국산화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면 일본도 또 다른 형태의 더 고도화된 소재나 부품을 아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보셨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아까 모리아마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제3세계국가들 베트남 같은 곳이 고도경제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것을 이미 극복한 일본이나 한국이 어떤 기술을 줘서 그것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꼬야마 선생님한테 여쭙 보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뀐다 라고 했을 때 투자자

로서의 공동협력을 해서 베트남에 가거나 제3세계에 가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베트남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가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꼬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

저는 먼저 베트남은 베트남 한 나라만이 아니고요 한국기업, 일본기업,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베트남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실화를 더 재고시켜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 트럼프 정권하에 미국제1주의, 그 보호주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알셉(RCEP)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한국, 일본에 있어서도 공통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회의에서 서로 비판하는 장면도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해서 먼저 자유로운 경제권을 만들어서 한국정부, 일본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일본기업,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경제권을 향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물론 경쟁 관계에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출분야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로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업도 프린트 업계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플라이어 공급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점점 베트남으로 다시 제조업 거점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일본기업, 일본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거래 기회로 이어지고, 한국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본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매칭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포함해서 아시아는 한국, 일본입장에서 봤을 때 아세아는 대단히 큰 좋은 시장의 기회의 자리입니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더 살리자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을 서로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공동진출을 해나가는 방법, 또 그를 위한 여러 지원을 이미 양국의 산업기술협력재단이라든지 제트로, 코트라 등에서 하고 있을 건데 그러한 여러 지원 활동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력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장(염재호) : 사실 산업에 있어서 국제분업을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는 분도 많이 있으셨습니까마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제3세계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같이 있었던 교수가 한번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기업이 정말 죽었느냐? 왜냐하면 삼성이나 엘지 이런 데가 하는데 죽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삼성이나 엘지는 80년대 일본이 했던 것처럼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소재부품들은 일본기업이 만들고 있어서 일본기업의 전략은 이제는 소재부품 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꼭 일본기업이 디클라인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재밌는 코멘트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떻

게 보면 일본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한국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역할들을 하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같이 경쟁을 똑같은 것으로 산업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아까 무꼬야마 선생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베트남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앞으로 커져가는 경제권들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양국에 이익이 될 수 있고 기업이나 경제계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 총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한일관계 갈등을 극복해나가야겠지만 아마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차세대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한일대학생간의 토론을 많이 시켜 봅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 90년대생들은 굉장히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혼자서 밥 먹는 걸 좋아하고, 별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시켜보면 이상하게 우리 기존 기성세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기존의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대화의 장소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젊은 여러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일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과 우리가 다를 텐데 똑같지않느냐.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한테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한일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느냐 항의를 해야 될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존의 답론에 굉장히 빠져 있고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인터넷 세대다보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한일간에는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아까 염재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외로 한국과 일본을 서로 방문을 안 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간에는 그런 게 많은데, 저는 대학생들이 상호양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 ‘에라스무스’라고 해서 에라스무스에 소속된 대학의 학생은 유럽 어디 가서 공부를 해도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한일간에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한 4백개 대학이 있고 한국에도 약 2백개 대학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일관 에라스무스를 설립해서 에라스무스에 들어가 있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은 상대국에 가서 어디서 공부를 해도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대규모의 대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케이무크’라고 아주 양질의 동영상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케이무크’라고 하는데, 일본에도 들어보니까

‘제이무크’라고 해서 원격강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케이제이 무크’라고 한다든지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상호인식을 바꿔나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제도들을 가지고 기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카라든지 코이카가 있는데 서로 따로 따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이코와 코이카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제3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맘을 흘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차세대 학생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하고 후쿠오카는 2백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본 방송도 다 생방송으로 들어오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라디오를 들을때 보면 음악을 리퀘스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누구누구가 음악을 리퀘스트 해왔습니다’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산-후쿠오카 간 초강력경제권, 그 다음에 경제특구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하고 후쿠오카는 비슷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오카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콘텐츠 쪽으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벤처 하는 것을 엮어서 부산-후쿠오카 벤처밸리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젊은 이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여러 가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염재호) :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저도 좀 여기 기업에 계신 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예를 들면 인턴십 아까도 모리야마상이 얘기해 주셨 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한국에서도 일본학 생들의 인턴십을 활성화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경험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모리야 마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SJC로서 또 기업으로서 구체적인 컨트리 리스크의 문 제점이 무엇인지 약간 어긋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작년 일본 제트로가 아시아 태평양 주에서 20여개국 과 지역에서 진출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은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즉, 한국은 일본기업에 서 봤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들이 한국에 많았습니다. 즉, 한국에서 그만큼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투자할 때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한국은 안타깝게도 밑 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위, 2위는 홍콩과 모나코였 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였다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 비 혹은 노동조합문제 그리고 또 경쟁이 대단히 치열 해지고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이 건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EU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실시 했는데 한국에서의 미래의 투자는 대단히 어려운 상 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인건비를 손꼽고 있었습니다.

국가 리스크라기 보다는 한국이라는 시장, 저희가 프 레임 필드로서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의 난이도 올라가 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리스크라는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바로 리스크입 니다.

이것은 자동차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SJC도 서베이를 했는데 자동차, 식료품, 의류, 의약품, 기저귀 등등 이 것은 매출이 정말 크게 떨어져서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석탄의 발전소에서 태운 후에 찌꺼기를 수입하고 있 는데 이걸 시멘트의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능 검사를 한국정부가 강화한다고 해서 이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제국 총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본인 인 식 중에 ‘~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일본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한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 습니다. 정부라든지 사법판단 관련해서 역시 리스크가 있다고 안타깝게도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 입니다.

그리고 경제인, 기업의 지원 어떤 게 필요한지와 관련 해서는 역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보고, 제품이 얼 마나 좋은지, 서비스, 품질, 신뢰성 이런 걸로 순수히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눈치를 보 거나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제품에 높은 품질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잘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역시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가 불매운동과 같은 것, 혹은 일본에 대한 반일운동을 너 무 자극하지 않는, 부채질하지 않는, 오히려 가급적 억제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어 제부터 말씀 나왔지만 결국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라 든지 아사히맥주라든지 또 저가항공도 결국 한국인 종업원들이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걸로 인해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

간이 아니라 역시 정부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건 좋지만 이제 슬슬 구체적인 해결책을 대화해서 어떻게든 조속하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러한 회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염재호) : 감사합니다. 사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로 나누어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인데, 요즘같이 글로벌한 생산시스템에서는 파이널 프로덕트가 어느 나라 제품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느 나라를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자국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양국이 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은 민간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15분, 20분 남았기 때문에 오늘 참가하신 일본쪽에서 오신 분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질문을 한 두세 분 정도씩 받고,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요. 코멘트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도는 오늘 발표자들이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전체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행요원들이 마이크를 갖다주시죠.

질문자 :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인협회 전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아까 모리야마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 12년 전에 가라오케 대회에 나

가서 제가 '이시까사요리'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사장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3년부터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 한 30수년간 됐습니다. 근데 이번 회의같이 매스컴에 주목을 받은 적은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이번 회의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우리 경제인들에게 앞으로 한일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양 정부는 등을 돌렸는데 양국 경제인들이 손을 잡았다' 그런 표현이 제 기억에 납니다. 저는 한일경제협회 전무를 퇴임하고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의 경험과 퇴임하고 난 뒤에 10년간의 관심을 담아가지고 다음 달에 책을 하나 발간합니다. 책 제목은 '일본은 원수인가 이웃인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4월 1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가오시마로 들어가서 60일간에 걸쳐서 일본열도를 걸었습니다. 4,600킬로를 이동하고 발로 걸은 거리는 1,111킬로에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을 많이 만났죠. 만났는데 역시 일본인 대다수가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한국과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말은 안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한일관계를 우려하고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 그리고 말하지 않는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 경제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염재호) :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일본 쪽에서 있으십니까?

질문자 : 일본측 부회장인 오카다입니다. 질문이 아니

라 코멘트입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제인 제3국에서 한국과 일본기업의 협력인데요. 사사키 회장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95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95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정말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 외에 중일이라든가 미일이라든가 또 일본과 유럽 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까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협력을 해서, 아까 이우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능했는지, 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가능한지, 두 나라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경쟁할 만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제3국에 있어서의 협력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추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대단한 성과라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해서 양국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어필을 하는 것이 저희는 물론이고 한국 측에서도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관계자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관계자분들 95건이라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밸류체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저는 스미토모상사에 있는 사람으로 여러 곳에서 밸류체인을 보고 있는데, 이 큰 흐름은 10년 전부터 일본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시장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비용이 점점 올라가면서 한 10년 전부터는 차이나 플러스원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른바 해외생산거점을 중국 외에 또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아세안 국가가 플러스 원에 하나였고, 오늘 주제가 되었던 베트남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2천년 경부터 일본 기업은 상당수가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을 했습니다. 한국도 그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일본의 강점과 한국기업의 강점을 함께 합해서 협력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베트남 또는 아세안 국가로 굳이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이죠. 다만 분야는 자원개발, 인프라 정비, 이런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의 강점을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소 회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처럼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오래도록 해오면서 지금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태에 왜 이르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손경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년 전에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죠. 그때까지 모든 것을 그때 청산을 하고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 라고 했었던 매우 획기적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차피 다시 한 번 파트너십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젊은이들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의
초등교육에서 각각의 국가가 아주 훌륭한 나라다, 각
각의 나라 사람들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초
등교육수준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코멘트였습니다.

좌장(염재호) :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는 못했는데 한국하고 일본의 기업이 95건의
공동협력을 해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해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받
고 기록을 해야할 만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이 다른 곳
에서도 계속 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
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일이
협력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
나하나를 뭘 할 것인가.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장점들을 이해하고 아까 장 총장님도 그런 말
씀하셨습니다마는 젊은이들도 옛날의 사고방식을 그
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서로 서로 이
야기해나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국 측에서
한분 말씀이 있겠습니다.

질문자 : 제 이름은 이재근(몰드 프라자 컴패니 사장)
입니다. 현재 저는 부천에서 절삭가공업을 하고 있습
니다. 주로 한 70%는 일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저
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
다.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도 가진 것도 아니고 현장
에서 노동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일문제가 생
기면서 저도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인들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
력하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
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인들한테 경제인들
이 돈 다 안 댔습니까? 그런데 왜 경제인들이 나라를
똑바로 왜 못 세우느냐?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돈 내놓고 다 해놓고 왜 똑바로 못 세우느냐?
그럴 경우에 경제인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라 결국적으로 경제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경제인들이 힘있는 경제인들이 하는
방법이 정말 없느냐? 저 같은 그야말로 작은 소기업
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박
사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좀 해보면 안 되느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방법은 다 알고 있더라도요. 방
법 알고 있는데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 일본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레바 데끼마쓰' 해보지
도 않고 왜 안 하느냐? 3국 가는 길 저는 좋은 모델
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같이 하면 되는데, 하면 됩니다. 하면 되
는데 안 하니까, 자기 주장 따지고 내 주장 따지고.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 안하면 중국하고 어차
피 빨려갈 건데 왜 안 하느냐? 안 하면 바보 아니냐
는 거죠. 이렇게 바보로 살 거냐? 결혼문제에 대해서
는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나서 저는 그런 문제를 뭐냐하면, 유
럽에 가면 아버지는 네델란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
본사람이고 할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런 데 많
습니다. 우리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결혼을 시키면 되
잖아요.

아버지는 일본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할아
버지는 중국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
이 좋은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좌장(염재호) : 감사합니다. 일본 쪽에서 오셨는데 질
문이나 코멘트하실 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 (아소 회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국에
서 했다가 그런 부분은 선배님들이 하셨던 거죠. 저
희 현역은 뭘하고 있는가? 저희 현역이 해야 할 역할

은 무엇인가? 그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테마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본측은 기본적으로 인재가 부족하고,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구직자가 많고, 매칭을 좀 더 대규모로 해서 교류한다고나 할까요. 좀 더 서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본에 있어서는 글로벌 대응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각사 5명씩 채용합시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걸 때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흘러가고 정부는 아직 나서지 않으니까요 민간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염재호)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발표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해 주시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우광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우광 주식회사 농심 사외이사

무꼬야마씨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일본의 수출관리강화로 인해가지고 초기에는 일본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 라는 게 마스크에서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때 실제로 피해를 받은 기업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약 100배 정도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본기업에서의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어느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좌장(염재호) : 코멘트가 아니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분씩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1~2분 정도씩 짧게 애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꼬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

저는 일본의 수출관리강화, 수출규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은 운영인데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면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한국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립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기업은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걸어온 경제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잘 될 것인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불안감이 큼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정말 리스크가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입장에서 이것도 60일 지나면, 90일 지나면 잘 제대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화이트 국가로부터 배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불확실성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 경영상의 리스크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는 역시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극일로 인해서 국산화를 기존 이상으로 노력할 것이고, 기업도 당분간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제3국 수입을 늘리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일본 이탈현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당연히 일본은 한국기업이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협력을 하겠지만 정말 저는 큰 문제를 저희한테 이번에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저는 아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는 말보다는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젊은 한국학생들이 일본에 취업하는 문제도 굉장히 액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그런 노력을 지금 해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호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양국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때 한일관계가 굉장히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계니까 교육계에서 한일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학계에서는 학계대로 모든 분야에서 각자 할 일을 액션을 통해서 보여줄 때 빨리 갈등이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이번에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있어서도 귀한 기회였습니다. SJC의 우려, 또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반도체 관련 새 품목에 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에서 ‘수출 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비즈니스로서는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있어서 장차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따라서 조달소스를 다양화 시킨다 라는 건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일본기업으로서도 역시 한국에서 국산화하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일본 것이 또 품질 쪽으로 뛰어나고 화학적으로도 훌륭하다는 걸로 비즈니스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3국의 협력도 그리고 또 규제문제가 있더라도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에 메리트가 있다면 이것도 한국기업도 일본기업도 반드시 계속할 겁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불매운동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좌장(염재호) :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의 갈등 또는 소비자나 민간차원에서의,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매운동 같은 그러한 것보다는 앞으로 아소 회장님도 그러셨고 장 총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위론보다 구체적인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나오게 되면, 아~ 실질적으로는 이 두 나라의 미래관계가 굉장히 밝다 라고 미디어에서도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서 ‘미래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것이 이제 터전이 제3세계, 한일이 서로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안보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일본, 미국-한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무기의 소비자인, 생산자가 미국이라면 소비자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교섭에 강점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각자 각자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하고, 지금 포퓰리즘이나 이런 국내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을 때 양국은 서로 협력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

고 미국하고 교섭을 하는데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드리면 저희가 와세다 대학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국제화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려대학교가 일찍부터 영국계 대학 컨소시엄인 '유21'이라는 데에 멤버가 됐는데, 각 나라에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와세다가 멤버가 돼서 참여를 해갖고 유21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세다는 저희 고려대학교를 베니스에 있는 베니스 국제대학에 컨소시엄에 추천을 해서 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무대에서 보게 되면 한국이 일본을 끌어주고 일본이 한국을 끌어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경제쪽에서도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베트남도 떠오르고 할 테지만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모아서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시장에서 활약을 하게 될 때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념이나 정치나 이런 것을 떠나서 경제계에 계신 분들은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장제국 총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젊은 세대의 한일양국의 교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업에 계신 분들,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해서 미래에는 더 가깝게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쉬지 않고 저희들이 2시간 반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발표해 주신 분들,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 코멘트 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오후 세션도 여러분들이 참가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미래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저희들이 내딛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2세션

테마 : 한일 공동과제 실현

사회 : 유승훈 실장

잠시 후 제2세션이 시작되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주제 발표자님하고 좌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2세션에 새롭게 참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는 1번, 일본어는 2번 채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공동과제 실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의 좌장님과 한일양측의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고태리 스즈무 시즈오카현립대학교국제관계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동경외국어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 서강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으며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정치부 전문조사관으로 역임하신 한국전문가십니다.

이어서 제2세션 주제발표를 해 주실 한일양국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발표자입니다.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수훈 교수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셨지만 2017년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겸 한일경제 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서석송 부회장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일본측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쿠다소토로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전유미 켈리서비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고하리 스스무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좌장 : 【고하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하리입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지역연구를 하는데요. 한일 관계라든가 한국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한일 공통의 과제 해결의 실현’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걸 평범한 말로 바꿔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전 중에 염재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TV토론에서 사회를 봐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듬더듬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순서대로 여러분께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이수훈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오쿠다 교수님, 서석송 전무이사님, 그리고 전유미 대표이사님의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감사합니다. 사사키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여러분, 서울에서 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51차 한일경제인 회의가 성립되고 또 개최됨에 있어서 큰 노고를 보여 주신 김 윤 회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 제가 대사 재임 경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주일대사로 부임했을 때 기대에 부풀었다기보다는 큰 중압감을 가졌습니다. 과거사와 관련된 현안들이 해소되지 않는 채 양국간 긴장감이 높았고, 동북아지역 정세도 구조적으로 한일관계에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 동북아협력과로서 일말의 희망을 안고 도쿄에 간 것도 사실입니다. ‘투 트랙 외교’라는 틀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위안부 합의문제 때문에 일본정부와 긴장감

이 있었지만 2018년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라는 긍정적 계기도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이 나오고 분위기가 아주 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옆친데 닳친 격으로 12월말 지소미아 레이더 갈등이 터졌습니다.

이 군사갈등을 많은 사람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또 거짓말을 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들에게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큰 악재로 기록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한일갈등이 한참 진행중이던 2019년 초 들어서 6월 말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 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서울과 도쿄의 중간에 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도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을 두고 양정부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하고 있었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제가 도쿄를 떠나기 전에 이미 일본언론에서는 오사카 G20회의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 오사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이낙연 총리가 간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사카에 가셨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국 지도자만 아베총리께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잣대로 말하더라도 저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두 지도자 간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사카 G20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정부는 한

국에 대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 세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오사카 20회의에서 아베총리께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의 수호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모순되는 조치였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이 진행된 나머지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 동결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때 이 같은 대항조치가 나올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2018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일간 투트랙 외교의 초석을 놓았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즉, 201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라면서 과거 직시와 미래지향이라는 투트랙 외교원칙을 설정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투트랙 외교는 대일외교의 원칙으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투트랙 외교를 수시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입장 제시를 계기로 그간 긴장관계가 계속 되었던 국민을 뒤로 하고 한국대사관은 다양한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진척시켜 한일관계의 경색을 풀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은 한국대사관으로서는 그야말로 하나의 전기가 될 그런 해였던 셈입니다. 특히 5월 9일은 고무적이면서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대통령으로는 수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취임 1주년이 겹친 나머지 국내 일정으로 인해 당일치기 방일이 되었지만 한국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자체로 의미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총리와 오찬을 겸한 한일정상회담도 개최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선언을 개념하는 취지로 다수의 세미나와 포럼이 도쿄와 서울을 오가면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사들의 교류와 왕래가 활발했습니다. 아베총리도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9월 22일~23일 이틀 동안 히비야공원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는 약 8만명이 참석하여 예년에 비해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2018년의 한일관계는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정부는 강경한 태세로 이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위반이며,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위반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행정부가 사업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2개의 다른 입장이 충돌하면서 투트랙 외교가 근본에서 부터 위기를 갖게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투트랙 외교가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신뢰, 관리, 안보 이런 등의 이유를 대면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라는 형식으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투트랙 외교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한일간의 주요산업과 경제 전체가 매우 깊숙하게 상호 연결되어 발전해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일본정부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루즈 루즈이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일본정부의 조치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과

거사 문제로 인해 야기된 두 정부의 갈등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하여 해결해나가는 한편 경제분야의 협력은 더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투트랙 원칙을 깨서는 안 됩니다. 한일경제인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양국 일반국민들은 한일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투트랙 외교를 복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정부도 일본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제외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신중히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지향이라는 투트랙 외교의 한축을 재생하는 셈이 됩니다.

과거사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징용문제는 한국정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특사파견을 비롯해 물밑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상황을 방치해놓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정부가 6월 19일에 제시한 이른바 '원플러스원(안)'은 징용문제 해결의 최종(안)이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원플러스원(안)에 들어있는 한국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결과라는 점을 일본측이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국정부를 옥죄는 격이 됩니다. 열린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 의회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이나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설이 있고 20년 뒤인 2018년 한해 한일양국의 민간교류가 1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양국이 순식간에 적대하는 국가인 것처럼 만들어져버렸습니다. 1965년 기본조약이 근린우호의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사 이전에 평소 동북아전문가로서 동북아시아가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제시해왔습니다. 하나의 질서가 구조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일대 혼란이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이죠. 역내 국가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과 일본은 충돌의 궤적에 들어 있습니다. 이 궤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위기에서 또한 소중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와 개입 노력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방향으로 지역질서 미래를 설정하고 각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방향으로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할 국가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손잡고 협력해야할 일이 태산같은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고하리) :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는 일본의 비즈니스맨, 연구자분들로 부터 일본측의 위기감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수훈 교수님께서 전 주일한국대사 경험을 토대로 한국측의 지금까지의 정책적인 입장을 포함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인데, 그럼 또 지금부터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쿠다 사토루 교수님이십니다. ‘한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향후’인데요.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쿠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오쿠다 사토루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방금 소개 받은 오쿠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수년에 걸친 한국 경험자로서의 경력 속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한일관계의 현황과 그리고 향후’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다만, 1부에서 주요 논점은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내용입니다. 먼저 한일간의 상호 의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인, 즉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요. 일본측에서도 한국에 바라는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분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공동과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 성숙한 시대를 위해서 양쪽이 공동과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호이해의 중요함, 평범한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의존입니다. 오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실은 일본이탈, 한국의 일본이탈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의존의 심화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의존은, 이걸 무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잘 알아볼 수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까마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밸류로 봤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서로 접근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이탈, 이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생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는 지금도 중요한 부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출관리규제와 관련해서 한국측에 큰 충격을 주었

다 라는 것도 그것만 보더라도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후에도 한국의 대일의존도를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일수입비율이 저하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전 중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산화 추진이 첫 번째 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등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원이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FTA가 진전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전까지 기계는 사실 일본에서 독점한 상황이었는데요. 한-EU FTA가 있고, 한-미 FTA에서 유럽 제품들도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한일 양국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측에서 도입한다거나 또한 한국이 국산화로 대응을 한다거나 그와 같은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조합되면서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측의 사정을 살펴봐도 좋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수출비중이 1990년대에는 5~7%로 크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 아직 중국과 미국 정도까지는 많지 않지만 7~8% 정도 꾸준히 이쪽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일본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비중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525억 달러가 2018년도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5조8천억엔입니다. GDP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 바로 포기할 수 있는 숫자인가. 그 대답에 대해서 아마도 '노'라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국내시장이 침체된 일본에 있어서는 이 숫자라

고 하는 것은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큰 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출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원천에서 어느 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있는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1998년에 일본쪽의 숫자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의 부가가치의 원천, 국내에서 나오는 게 89.2%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10%가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즉 이런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한국쪽을 보시면요. 그 제품조달측과 예전에는 중간제품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일본이 7.3%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부품소재 제품을 많이 사용한 결과였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4.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으로 부터의 부가가치는 더 높아졌죠. 98년 2.7%가 18년도에 8.2%까지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세안에서도 수요가 늘었고요. 중간도입재의 조달처가 일본에서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행되었음을 실제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도입재가 일본 내부에서만은 피라미드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된 국가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외조달 전체 규모가 늘어가면서 국내에서 유래된 부가가치가 조금 줄었습니다. 10% 정도가 줄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유래의 부가가치, 0.5%에서 1.1%로 늘었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아세안으로부터의 조달도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의 면에서 봤을 때는 한일간의 상호의존도

가 더욱더 심화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한일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봤을 때는 역사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가 경제, 무역, 즉 여러 방면으로 파급을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악화를 막아주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마는 그때 나왔던 것은 '문화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경제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했었는데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수출관리, 이런 것이 실제로 발효되면서 '경제관계가 좋으니까 괜찮다'라고 더 이상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묘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냉각된 상황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조치는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다행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민족 또는 국가의 자존심, 이런 것이 비즈니스 경제적인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언제까지나 이 상황 때문에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디서든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발언해야할 것입니다.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싼 상황입니다.

한국측의 특실은 오전 중에 세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과연 눈에 띄는 점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포괄허가'라고 하는 것이, 포괄허가가 더 이상 안 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몇

가지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개별신청허가’ 이런 것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정지로 인한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품소재 납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이 가장 장점인 생산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아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떨지 한국측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너무 희망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소재의 국산화, 또는 제3국 공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부품소재에서는 영향이 나올 것이고요. 소비재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예를 들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이것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조치가, 즉 수출관리가 엄격하게 일어날 경우에, 강화될 경우에는 일본에서 조달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 것인가? 어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조달처로 부터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사고방식이 확대되면 일본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에서는 그 손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황 및 그리고 양국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공동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과제에 대한 꾸준한 대응을 한다 라는 것은 이 회의에서도 종종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일만의 가능한 협력이 관계복원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램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

니다.

먼저 우리가 대응해야할 과제를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공통된 과제입니다. 고령화 대책, 글로벌 경제협력, 그리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국가에 대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는 것, 즉 제3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자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인 근접성에서 봤을 때 협력과제로는 환경협력, 에너지 또한 재해협력, 어업협정 이러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일본의 노하우를 한국측에 전수를 하는 일이 이미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70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연금 또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요양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어떻게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한국에 꼭 전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앞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인데요. 좀처럼 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협력입니다. 글로벌 인재고용 또는 육성, 이러한 것은 양국 모두 지금 직면한 과제이긴합니다. 우선 한국인 인재의 일본에서의 취업에 대해서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한국에서는 높은 편이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일본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인 학생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의욕이 넘치고 영어 등 어학능력이 뛰어나고 평가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다만 일본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사람, 즉 계획은 분명히 있고 일본기업의 요구사항에...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요. 학생들하고는 그게 매칭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정착이 어렵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게 아니다'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측에 잘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인재 글로벌 육성이 있는데요. 역시 최근 들어서 종종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해외에 나가고자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외국기업, 외국기업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에서 해외인턴십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도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2개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에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턴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단기연수라는 의미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정식 채용 전에 실습 수습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채용하기 위해서 일본학생들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단기연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시찰할 정도만 되도 좋겠습니다.

제3국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수출관리문제 또는 화이트 국가 제외로 인해서 한일양국 모두 서로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

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본기업은 한국기업이 제3국에 진출해 있는 곳에 가서 생산제품들,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방법, 이것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규제라든가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글로벌 인재 협력이고 여행자 편의제공입니다.

여행자 편의제공은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보급이라든가 캐쉬리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협력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했었는데요. 해류와 기류 관계로 일본이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한국 모두를 포함해서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자간의 협력의 틀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협력의 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 및 재해협력인데요.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게 됨으로써 LNG 발전쪽으로 크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른바 전력공급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에너지 믹스를 이용해서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LNG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재해시에 대비해서 상호용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통비축을 한다거나 한일간 송전선을 구축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때 전력부족, 호카이도에서 대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걸 혼슈 본토 쪽에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융통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용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일간에 송전선을 구축한다거나 또는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즉 LNG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업협정입니다. 난획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원관리 면에 있어서의 협력이라는 면에서 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설득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먼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갈 경우에는 한일분쟁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어려울까라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개선의 날이 언젠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꾸준히 협력했던 실적이 있을 때, 관계개선이 되었을 때, 복원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간 대립이 지금까지 경제분야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었는데 요. 그게 이번에는 파급이 되고 말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한 비즈니스의 냉각이라는 것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한일간의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아마도 경제계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울 것이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적 이익인가, 역사를 더 중시할 것인가 여기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번 일로 잘 이해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한국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한국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일본 사람들이 알겠지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이것이 한일분쟁의 원인이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입연이 분명히 있고요.

‘상대는 외국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메시지 발언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국내 과격하 여론과 같은 수준에 맞춰서 발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재자의 입장에서 발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장(고하리) :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측에 한 분, 일본측에 한 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측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석승 전무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석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저는 사실은 오늘 본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무국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 있을 수 없고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가 돼버립니다. 창구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많은 발언들이 어제부터 있으신데, 제가 사회를 어제부터 보면서 양국 단장님의 말씀, 개회사, 또 기조연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표와 여러 회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과연 필요하기는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사 못 간다’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협력을 해야 되고, 잠재력이 극대치까지 가야만 하는데, 지금 빨간 신호 들어온 거죠.

어제 언론이 100개사가 넘게 취재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수훈 대사님 말씀해 주신 것에서도 소위 ‘투 트랙’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로 썼든 과거와 미래 분리라는 이름으로 썼든 정치와 외교, 외교와 경제 분리라는 의미로 썼든 안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부러뜨려버렸습니다.

모리야마 SJC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매운동 있죠. 아까 오쿠다 선생님이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 백색국가에서 각국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공동입니다.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달 전입니다마는 소위 ‘지소미아’ 미사일도 부러뜨렸습니다. 지금 이런 정황이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표준편차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양극단에 갇

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될 만큼의 극단에서 여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인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측 단장이신 김 윤 회장께서 어제 개회사에서 하신 말씀에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시다마는 경제는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유기적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마는 그게 튼튼한 기반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진 난 것처럼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인적교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750만 명이 넘게 갔고, 3백만 명이 왔다 아마 내년 통계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집어넣었어요.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이 5%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부분도 10% 인데, 이것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상당히 내년 실적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투자는 몇 번이나 거론이 되지만 누계로 13.4%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사사키 회장님 어저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SJC에 약 4백개 회원사는 일본회사가 아닙니다. 일본계 한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어디까지나 한국회사인 거죠. 모든 회원사가 다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계 일본회사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여기 동경에서 한기련에 열심히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1년 반전 사진입니다, 평창 때 찍힌. 근데 언제 찍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5년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양국가수들 노래나 나오는 것이지만 이따위 가사가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거미줄이 막 쳐져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가자는 대안을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저 산을 넘어야 ‘옛날에 그런 때도 있었지. 그렇게 험악한 때도 있었지’라고 얘기를 해야될 텐데 저게 저절로 될 것 같지 않습니

다,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피해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상징물 몇 개를, 뭐 위안부라든가 일본과 한국의 표현을 달리합니다. 마는 그냥 언론표현대로 '징용공'이라고 하죠. 그런 한쪽 저울대에 올려져있고, 그리고 한일간에 우호관계가 오른쪽 저울대에 올려져있는데 저게 어디에 무게 중심이 쏠려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미래의 피해자가 누가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서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불교에서 쓰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고요. 정신분석학에서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고집멸도'라고 써놨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그 문제는 어떤 원인부터 생기며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수순인데, 'Way to go, What to do, How to do' 이렇게 써왔는데 지금은 한일양국이 시작점이 '고'라고 하는 데서 지금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시각부터 너무 온도가 있어서 '이를 어찌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어제 개회사부터 누차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 하나만 있다면 딱 이 그림이죠. '이사를 못 간다'는 그림입니다. 이사 못갑니다. 못가니까 아까 '공부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에도 서로 서로 아는 것같이 보여도 아는 게 없었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시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더 이해를 해야 되고 해외시장에 나가서 선의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서 공존, 공영할 수밖에 없다. 서로 서로 살아남아야만 한다. 그게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뭘하자는 얘기냐. 그 '원원'이라는 말은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국제협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좁은 소견에 오랜 경험으로 보면 저는 원원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입니

다. 마는 어디까지나 갈등이 있을 때는 불만족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끝나지, 원원하는 건 벌써 됐겠죠. 그러니까 불만족의 균형이라는 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 한국도 일본도 100% 만족하는 일은 있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중잣대를 써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관대하고 남한테 가혹하면, 제가 저기 쓰레기통을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고 남에게 관대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 그러면 적어도 이중잣대는 아닌 상황이 중요하다.

만약 이런 점을 놓쳐버리면, 이거 놓친 10년 전에 나온 소설이고 우화입니다. 동물농장 꼴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그림입니다. 지금 한일양국의 갈등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기업들이 전면에서 당사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양국이 기업을 저렇게 권투장갑을 그려놓은 듯이 갈등구조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국기업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집단이고,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자고,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살고, 거시와 더불어 미시를 생각하고,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를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양국의 기업을 갈등구조로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최고 경제인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마는 기업은 돈을 벌어야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대수익도 낮고 위험도 작은 것이면,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마도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고 이자를 받는 게 낫지,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뭐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최대 이익과 최고의 위험 사이에 있는 결합체라고 보면 그것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성공하거나 비참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은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지금 현재 예측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자꾸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냐? 작아보여도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길게 봐야만 되고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공존, 공영하고 좋일 일자리 만들고 미래를 위해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아소 회장님이 말씀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말만 떠들어서 뭐하냐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죠. 일본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취업난입니다. 그런 부분에 공통과제를 찾고 매칭을 시켜줘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계속 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호텔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7층에서는 일본의 퇴직기술자가 와서 가르치고 있고, 2층에서는 상담회를 하고 있고, 내일은 대규모로 한국 청년인재들이 일본기업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이걸 95건의 공동진출 건수라는 게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게 높이 평가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게 이 그림에 나오는데요. 한국기업도 일본기업도 이윤의 극대화, 위험의 최소화라는 점에서 같음하다보면 제3국 나가서 다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양국의 기업의 강점은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둘이 손을 잡고 나가면 이윤은

조금 작아질지 몰라도 위험이 최소화되는 건 분명하다. 이래서 해결해야만 되고, 그러면 전략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지금 정황, 아까 투트랙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깨져있다 이렇게 말씀 올렸으니까 지금 정황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 원만히 되는 건 사실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되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것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은 지금 회의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이게 연기됐다가 열리는 회의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노력이 바로,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계기고 시작점이 돼야 된다. 빨리 오늘의 회의를 계기로 해서 결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보고 모여서, 이사를 못 가니까요. 공존 공영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를 서로 찾아서 실제적인 협력이 일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경제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문화와 지자체 모든 분야로까지 이게 빨리 선순환 구조가 전파되고 확대되지 않으면 정말로 미래세대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된다.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고 분석만 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고하리) : 감사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 ‘행동’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부터 ‘당사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발표해 주실 분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당사자 분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케리서비스에 전유미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일본측의 발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유미 대표이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일본기업의 ‘퍼솔’이라는 인재관련 기업입니다. 거기에 ‘퍼솔코리아’ 현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측에서 발표를 부탁드려서 일본측 관련사로 지금부터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4차산업 혁명시대 인재동향 및 한일협력 인재육성'입니다. 나중에 토론하실 때는 인재육성, 앞서 몇 번 나왔지만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토론시간 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유미

Kelly Services, Ltd.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퍼솔코리아에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전유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는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퍼솔코리아는 일본에 있는 퍼솔재팬이라는 HR 인사솔루션 회사의 한국지사이고요. 지금 글로벌리 약 10조 정도의 인사 관련된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150명 정도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브랜드로 퍼솔과 캘리서비스라는 두 가지 브랜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인사 전문가다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그리고 이런 인재상을 더 한국, 일본 모두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을지, 저희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히 동영상 준비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4차 산업과 거기에 인재들에 대한 것이 사실 이 동영상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짧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4차 산업 혁명 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단순히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거리만 게 아니라 사실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한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게 사실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최근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자체에서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약 8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거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어떤 일자리들이 필요로 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고 있는 이 1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겁니다. 저기 계신 분도 카카오톡으로 문자 받고 계시고 라인으로 문자 받고 계실 텐데 사실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들 안에 약 20%만 실제적으로 지금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자료들은 그대로 사장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컬렉션이 되긴 하지만 그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분석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IBM이 이 문제에 대해서 AI시대에 인재의 부족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하게 됐고, IBM이 시작한 뉴컨셉 자체가 '뉴칼라'라는 컨셉입니다. '뉴칼라'라는 건 다들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가 아니라 실제적

으로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AI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세대를 '뉴컬라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컬라'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 공채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기업에서 시키는 일을 해왔던 게 기본적인 업무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뉴컬라 세대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기업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정부가 밑에서 주도를 하면서 실제로 학교, 기업, 정부가 사이클이 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뉴컬라라는 컨셉에 IBM에서 지금 CSR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핀테크 스쿨'이라는 건데, 글로벌리 약 100개 정도되는 학교가 참여해서 AI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세명고등학교, 경기과학대학이 참여가 돼서 핀테크 스쿨을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퍼솔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그러면 AI인재육성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과 일본 모두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AI관련된 인력이 약 190만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60%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까운 중국을 보면 중국은 약

5만명의 인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실제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5만명의 인력들이 각 대학과 고등학교와 연계가 돼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앞으로 세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같이 육성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재가 진짜 필요한 인재인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스티븐잡스 한명이 기업 전체를 먹여살린다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스티븐잡스처럼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던 화이트칼러, 블루칼러 역할을 로봇이 대처하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스티븐잡스처럼 창의적이고 문제해결이 뛰어난 사람만이 앞으로 요구되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인력들을 수급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가장 키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적이거나 내가 영어를 쓰든 일본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모국어가 무엇인가, 인종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는, 그게 지금 현재 당장 요구되는 인력들의 구성인 거죠.

실제로 실리콘밸리만 봐도 전체 일하고 계신 인력의 60%가 미국분이 아니죠. 아시안이 되고 유럽피안이 되고 다양한 국적과 다른 모국어를 쓰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페이스북이나 인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인사담당자가 실제적으로 전체 인력의 40%를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모국어를 다른 걸로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

는 게 인사담당자의 케이피아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한국이나 일본에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어떨까요. 보시는 수치처럼 한국이 해외인력의 퍼센테이지가 2%가 조금 넘고요. 일본은 최근에 늘어나서 4%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만이라도 서로 인적교류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서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가자는 게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뭐가 있을까 보면 이미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주도 하에서 이공계학생들이 각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현장실습을 하는 것을 정부주도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고요. 또 기업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도요타에 있는 학생들이, 민간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도요타에서는 한국에 있는 이공계학생들을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본에 도요타 공장을 견학을 하게 하고, 그 학생들이 꾸준히 일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를 민간주도형의 활동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퍼솔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모셔 와서 하는 잡페어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일본에서 더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싶어하는 한국계 기업들을 일본으로 모셔와서 거기서 취업설명회 같은 것, 또 회사에 피알할 수 있는 피알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이런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정치적 이슈상황에서는요.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저희 일본 본사나 한국지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인적교류가 더 많아지는 게 저희가 오히려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첫 번째 프로그램이 IBM과 진행하는 피테크 프로그램인데요. IBM코리아와 일본지사의 퍼솔알앤디라는 지사가 있습니다. 퍼솔알앤디는 자동차디자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 자동화 설계를 하는 제조라인의 인력을 공급하고 거기에 비즈니스 어드바이즈를 해주는 저희 계열사이고 약 2만명의 인력이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퍼솔알앤디는 실질적으로 인력난이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은 IBM코리아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엔지니어, 그러니까 지금 퍼솔알앤디가 실제적인 기본 커리큘럼을 짜고 IBM코리아가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기술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 퍼솔코리아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연계해서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M-퍼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결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실제적으로 IBM같은 경우는 물론 5년 동안 이라는 기간동안 IBM의 엔지니어들이 본인들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퍼솔알앤디도 역시 비슷하게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을 본인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스텝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일정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인턴십도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실 시간투자자와 에너지투자가 많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5년 동안 키워진 학생들이 결국은 IBM이나 퍼솔알앤디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다음 먹거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5년이라는 교육기간을 IBM과 퍼솔알앤디는 똑같이 시간투자를 하고, 인력투자를 하고 멘토링 코스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에이콘'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국에 런칭을 하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콘은 일본에서 가장 큰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스타트업들 많이 만나시죠? 스타트업들 많이 만나시고 일본과 한국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비즈니스화하고 상용화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 2년 전에 사실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 또 기술조언, 대기업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스타트업들을 본인들 기존의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게 스타트업들이 어쨌든 기업기술자문 또는 특허관련된 조언, 이런 것들을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일본에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를,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약 8천개 정도의 회원사가 확보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 말에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한국에서 런칭을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준비하는 바는 이 프로그램을 일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술교류, 인적교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플랫폼 안에서 진행이 되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퍼솔스쿨인데요. 올 초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35만명의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일본으로 데려가겠다, 해외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저희 퍼솔재팬이 지금 준비한 건 각 나라의 퍼솔스쿨을 만들어서 일본의 문화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기간인데, 일본문화를 가르치고 일본언어를 가르치고 일본기업환경을 가르쳐서 이 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은 저희 퍼솔이 인정하는 좋은 학생으로서 각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퍼솔코리아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한국 또한 조만간에 인력난이 있을 것이고, 중국 또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퍼솔스쿨을 준비하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아시아에 있는 13개 나라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각 나라에서, 우선은 일본 쪽으로 좋은 인력들을 보내지만 앞으로 한국, 중국 모든 나라로 확장을 할 계획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오픈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졸업생들이 일본으로 가는 건 내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많이 사실 잘랐고요. 저희 퍼솔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과 한국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각 기업

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퍼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고하리) : 감사합니다. 인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1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분당 20분씩해서 8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제대로 지켜줘서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내는 시간이 3시 20분이었나요? 어쨌든 시간 조절은 앞으로도 해나갈 텐데요. 지금부터는 패널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이 각각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다른 발표자가 한 발표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분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대상은 지금 한국측, 일본측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수훈 교수님과 서석승 전무이사님, 오쿠다 선생님 또는 전유미 대표님, 이 두 분 중에 한분께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쿠다 교수님과 전 대표님께서서 서 전무님 또는 이 교수님께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하나씩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두 먼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순서대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질문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전무님께서 하나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쿠다 선생님, 그다음에 이 교수님, 전 대표님 이런 순서로 부탁드립니다.

(토론 & 질의응답)

서석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청년인재 취업과 관련해서 관심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계신 아소 회장께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청년인재를 잘 가꾸어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미 취업한 우리 학생들이 지금의 한일관계 때문에 굉장히 최악의 관계로 매일 언론에 나면 마음으로부터의 불안감, 초조감, 안정감이 떨어질 부분도 있을 텐데, 인력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활동이라든가 대책 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전유미

Kelly Services, Ltd. 대표이사

저희 퍼솔코리아 같은 경우도 일본에 거의 매년 4백명, 많게는 5백명의 학생들을 사실 일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부회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똑같은 우려들이 사실 많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조언은 사실은 그겁니다. 일본에서 경험이라는 게 나중에 적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도 보통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학생들이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해하실 텐데 일본계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태국이 되든 인도네시아가 되든 베트남이 되든 일본어를 하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는데, 사실 일본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해외로 지금 현재는 많이 나가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한국분들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업을 하러 갔던 학생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이런 쪽으로 많이 뺏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경험이 사실 그렇게 해서 5년 후, 10년 후 경험을 쌓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적자산이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요. 저희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이 경험이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실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이 큰 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밑에서 일하는 인력과 관련된 업체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게 젊은 세대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제 나이대보다는 이런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IBM과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같은 경우, 사실 일본에 계신 대표님께서 연배가 꽤 되신데 이 이슈 때문에 못하시겠다고 처음에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에 학생들은 일본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 더 적극적인 상황이거든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상호 협력해서 어떻게 상호 시너지를 내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성장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집중을 해야될 부분이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밑에 젊은 세대들의 이런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장(고하리)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분이 질문하시면 바로 대상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쿠다 사토루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젊은 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 전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의 대립 갈등인데요. 예전 역사문제, 그리고 일본에서도 현안으로 봤을 때는 그 낡은 세대의 반발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고착화돼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여학생들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립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한국에 가서 즐거웠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전 무님, 젊은 세대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특히 한국 젊은 세대에게 한일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서석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질문을 일본어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일본어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실히,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것은 절실한 그들의 바람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할 일입니다. 아직 인식격차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데, 일본기업에 취업한다하면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미쓰비시, 미쯔이에서도 오셨는데요. 도쿄에 마루노우치에 아주 훌륭한 건물, 높은 빌딩에서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아주 멋지게 일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은 일본 지방에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좀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본측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학생들 아, 생각이 너무 어리다 라고 할까요 느슨하다 라고 할까요?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고요.

두 번째, 저희 재단협회에서 1~2년 동안 50명 정도 취업시키는데 1년 반 지나서 재조사하면 그중에 30%는 그만둡니다. 왜 그게 깜짝 놀랄만한 숫자냐면 한국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람들도 30%는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일부러 가서 취업을 했는데 30%가 그만둔다?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 부회장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신 건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깐 1분만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국문제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 초임이 한국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초임보다 더 비싼 거죠. 그런데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임금이 일본이 비싸지 않네? 높지 않네?' 직접 네트로 받는 것, 물론 집세는 보증금 또 매달 집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빼다보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잠재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1년 동안 확실하게 훈련시키고 또 제몫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서 쪽 일하게 한다는 것이 일본의 방식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하루라도 빨리 팀일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학생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도 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비전도 없고 집에도 가고 싶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래서

30% 정도가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해결할 것인지 앞서 SJC를 대표해서 모리야마 사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라든지 아사히맥주 불매운동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큐슈지역에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도, 일본에서는 쓰시마가 제일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은 너무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하고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인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미 취직한 사람들에 대한 애프터 케어 플로어, 또 장기동안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체제를 갖추고 또 잘 그들을 케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고하리) : 지금 보면 오쿠다 선생님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냐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기업에 대한 바람 같은 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 젊은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석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957년생입니다. 환갑 조금 지났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젊은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또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고 자신감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한테 이런 것을 기대한다? 이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특별히 덧붙일 얘기는 없네요.

좌장(고하리) : 다음은 이수훈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 젊은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저도 사실은 도쿄 재임 시에 우리 한국 청년세대들의 일본취업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갖고 실제로 많이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실제 기업을 제가 가기도 했고요. 기업 운영하시는 회장님들도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관재를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취업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분들이 한일간 협력과제로 청년 취업 문제를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00% 공감 하고요. 제가 조금 다른 이슈로 오쿠다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장제국 총장님 발표에 한반도 북한문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이것에 관해서 우리 한일간에 협력할 소재가 많이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일 경제인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노선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뭐냐하면 병진 노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력도 추진하고 경제발전도 도모하고, 두가기를 같이 하겠다는 병진노선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미 핵무력을 갖춰버렸거든요. 경제발전은 아직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북한에 비핵화가 잘 안 되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국정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에 외국정부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곧

실무협상이 재개됩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북한을 다녀온 분들, 중국분들, 서양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엄청난 변화라는 것은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단 평양이나 대도시뿐만 아니고 상당히 외곽지역까지 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을 비롯해서 우리가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주 속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는 것은 북한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니즈를 갖다가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겨나는 겁니다. 시장이 생겨날 뿐더러 확정이 되고 있는데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제가 만나본 근래 북한을 다녀온 분들 그리고 경제영역에서 북한을 분석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미래에 북한이 반드시 개방할 수밖에 없고 경제발전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과 함께 오쿠다 교수님께는 일본에 한 2주 전입니까? 내각개조를 하고 말이죠. 특히 국장이 물러나시고 기타무라 내각정보관이 후임자로 갔는데 이분은 상당히 북한을 많이 대화도 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흐름 속에서 아베총리도 5월 달에 미국 다녀와서 무조건적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아베내각정부의 대북관여, 특히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가능성,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좌장(코하리) : 네, 지금 오쿠다 선생님께 북한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쿠다 사토루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오늘 발표회는 북한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쪽이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를 지속하고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주는, 미국과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원칙적입니다.

다만, 대사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김정은-아베 간에 이른바 정상회담, 이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어요. 예를 들면 미사일이 날아온다거나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라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와 같은 이런 채널을 함께 같이 하는 것이죠. 즉, 강경책과 온화한책, 일단은 원칙적인 논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직접적인 교섭을 하겠다고 총리가 말한 부분도 있고, 북한과의 접촉을 아직 발표 또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있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정세 판단으로서는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인민을 희생하는 걸 이럴 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은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합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신뢰, 비핵화에 대한 검증 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공공연하게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다음 달 바로’ 이런 건 아닌데요. 접촉은 계속 될 것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아쉽게도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냉온책을 그대로 병행하고 싶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총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코하리) : 이 세션은 한일공통과제 해결을 실현하는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문제, 특히 비핵화죠. 북한을 비핵화 시킨다는 것은 공통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에도 맞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회니까요. 사회자라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큰 충격이었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미일한의 관계 속에서 공통과제의 하나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전유미
Kelly Services, Ltd. 대표이사

저는 아까 서석승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오쿠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

해서 대안 중에 하나가, 일본에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고령화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여전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사례는 가까운 일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연재해 관련된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동일본 지진 이후로 자연재해 관련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슈를 지금 겪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의 이런 노하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 하고 기업들이 민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또 정부주도가 된다면 민관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서석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일본분들이 많이 더 계신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시면 일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37층에 가면 일본 퇴직자 엔지니어 기술자가 50명이 와서 매칭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용 중에서 국가가 40, 자기부담이 60%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2의 인생, 고령화 해결의 일환으로서 일본도 모노즈쿠리정신이 일본이 뛰어나니까 그걸 저희도 배우고 있고, 전문선생님이 90명이 계십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동남아시아, 한국, 여러 기업들에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것이 저희 산업, 제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비즈니스의 플래닝에 대해서는 앞서 오전에 옆방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방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진이 한국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2년 전부터 한국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아, 이것도 우리가 겪는 일이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수해, 홍수, 지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나오는 가운데 부품소재가 수출금지 아니냐 수출관리강화이고 경제침략이 아니냐라든지 이런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부품소재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 않아 수입이 안 되고, 또 부가가치화 시킨 한국의 훌륭한 제품 등이 일본에 부품소재로서 사용돼야 하는데 그것이 일본으로 수출이 안 되게 되면 그것도 비즈니스에 비씨피가 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그것도 비즈니스 컨트너 플랜, 비씨피의 하나로서 대책으로서 강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하리 선생님 질문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우리 청년, 일본 청년, 청소년들도 정말 훌륭 한데요 한 가지 매우 걱정되고 안타까운 건 내일도 그런 일이 있는데 매칭을 하잖아요? 20%는 ‘노쇼’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매칭타임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일부러 한국까지 채용을 위해서 오신 기업들은 ‘아, 한국 아직 멀었구나. 안되겠구나’ 라는 걸 일본 기업분들은 생각하실 테고, 또 중간역할을 했던 저희들도 체면이 서지 않고, 한국청년인재, 청소년들 뛰어난 것도 있고요.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그런 노쇼와 같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제3의 피해를 만들겠다는 걸 느끼면서 이러한 것은 꼭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고하리) : 지금 ‘노쇼’라고 한 것은 일본측이 기업설명회를 할 때 어떤 기업에 한해서 한국학생들이 안 왔다는 건가요?

서석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특히 약속을 안 한 건 아니고, 일부러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약속을 했는데 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경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3의 피해자를 만들고 한국의 학생 전반적인 평가를 손상시키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좌장(고하리) : 시간이 앞으로 30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한 10분 정도 시간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 분이 계신데, 이 네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아침에도 언급이 됐고 어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일본 문부성에서 글로벌 인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요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어학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두 번째가 주체성, 적극성, 도전의식, 협조성, 책임감 이런 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 일본이라면 일본인으로서 이러한 세 가지가 글로벌 인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공통과제인데요. 공통과제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고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인구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국내수요가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해외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전 중에 제3국에서의 협업이 95건이나 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시해야 할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전무님께서 일본에 가는 한국 젊은이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인재와 관련해서 이런 걸 해야 한다, 육성을 위해서 말이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한다 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쿠다 교수님께서 실제 그 학교에서 그런 걸 담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재현인데요. 본인이 실질적인 경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쿠다 사토루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네, 그러면 제 경험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 제가 대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체트로에서 체트로 밑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한국연구를 했었습니다. 7년 전에 학교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수업을 하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들었던 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해달라, 오히려 이쪽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놀랐던 적에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문부과학성에이 낸 글로벌인재 보조금 이 걸 받게 되었다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중국대련에 협력기구가 90개 정도가 있는데요. 1개월 인턴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어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중국어 3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1년 정도 스파르타 식으로 저희가 속성과정으로 했었습니다.

그 후속으로서 한국에서도 인턴십을 해달라는 게 저에 대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련과견을 하기 1년차에서 커리어교육을 했었습니다. 이걸 그냥 단지 커리어교육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험이 있는 인재로 외국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전수하라, 그것은 굉장히 좀 큰 틀에서 논의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인턴십인데요. 상당히 어려웠

습니다.

한국기업 또는 일본계 기업에서 이들을 수용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표현이 나뉘는지 설명이 나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접촉했던 회사에서는 양국기업에서 수용을 해 주지 않아서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제트로 서울사무소에 저희가 파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키에프가 서울에 있었는데 두 기관에 저희가 파견을 했고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이른바 인턴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와 동등한 취급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 주제에 맞게 한국인 혹은 일본인 스텝의 전문가 앞에서 직접 피티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어쨌든 육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키에프에서 한국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비교적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내서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련파견 부분입니다. 1년차로 진행을 합니다. 대학교 4년제인데요. 3학년 또는 4학년이 되면 바쁘죠. 특히 4학년이 되면 대부분이 학교에 없습니다. 3학년도 굉장히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코리아 교육을 해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학년은 상당히 시간도 많고 수용도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올해는 9명, 처음에는 6명이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세심하게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련파견과 관련해서도 이미 백명 이상을 배출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100%입니다. 거기서 나오던 학생이 한명도 없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의 파견은 중국관련기업 또는 중국 파견을 하는 회사로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부분을 비판하는데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취업하는 학생들에게 '중국 관련부서로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가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왜 아닌 데를 선택했어요?'라고 물어보면 취업활동을 하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내정이 됐어?'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돌파력이라고 할까요. '환경변화에 강점을 갖고 있고 의욕이 넘친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내던져진 다음에 인턴십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전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피티를 하라고 하면 어찌어찌해서 다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한다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젊은 때 해외에 내보낸다는 거, 대학생 1학년때 쯤 그때쯤 내보내는 게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좌장께서 글로벌 인재라고 하시면서 3개의 조건, 어학력, 책임감, 문화에 대한 이해력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재가 있으면 제가 뽑고 싶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globalization도 중요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localized 돼있는 specialty라는 게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점이 있는 부분을 택하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 미국에

서 태어나서 국적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영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얘기해도 과연 모국인 일본이나 한국의 문화 또 생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조직에 대한 충성,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도,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지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글로벌 인재라는 부분에 어떤 점에서는 개념화, 정의, 이런 것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고하리) : 감사합니다. 앞서 일본의 세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린건요.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 라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다른 부분, 고등학생에 대한 의식조사를 10년 전에 한 데이터가 있는데 고등학생들 ‘해외 유학할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나?’라는 일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일본기업이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중국인들은 60% 이상이 ‘해외에 가서 유학하고 싶다’ 그런데 일본의 고등학생은 40%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쪽은 특히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슬슬 플로어쪽에 마이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인재, 실제로 일본기업인들이 외국인 인재를 수용할 때 어려움이 있단든지 한국에서도 그렇다 거나 실제로 그런 예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유미

Kelly Services, Ltd. 대표이사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리서치 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퍼솔알앤디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에 아시아에 있는 13개 나라에 만명씩 인터넷을 조사해서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외에 나가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중에 하나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한국학생들이 최근에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36% 정도 나오고, 일본에서는 22%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매니저로 승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한국은 약 42%, 그러니까 승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세대들은 승진에 관심이 없고 지금 일단 일하는 것에 내가 일 정급여가 나오면 주중에는 즐겁게 쉬고 승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승인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퍼센테이지가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쇼킹했던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1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성장할 의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특징자체가 워낙 지금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젊은 세대들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변하고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고하리) : 그럼 지금부터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청중분들께 단순한 질문 또는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발언하실 분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경우 어느 분께 하시는 질문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 한화에 박재홍입니다. 오쿠다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한국에 대한 수출입관리 강화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것,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납품했던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국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만약에 영향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앞

으로 한국에 공급하기 위해서 제3국 혹은 한국에 진출해서 부품을 만들어야 겠다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일본기업들은 미리 미리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고하리) : 질문과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해주시고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 기계부품을 만들고 있는 와카이 사장입니다. 어제 오늘 이번 이 경제인회의를 참가를 하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수출규제 그리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이수훈 교수님 前주일한국대사님이 작년이었나요? 초대를 해 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때는 대사님이셨죠 대사님이셨기 때문에 별로 그때 중요한 말씀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교수님으로서 그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과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었다 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 냉전시대에 기반했던 움직임이고, 중미일간, 유럽에서는 나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유주의국가 즉, 공산권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의 체제가 있었을, 냉전시대때 부터 시작되었던 문제입니다.

저도 1960년에 공작기계업계에 들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물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물자를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취급할 때 서약서 그리고 대량과괴무기의 생산에 이 기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서약서까지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봤을 때 이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한국의 정부관계자들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만도 예전부터 백색국가에서는 제외가 되었고, 한국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까지나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질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여러 가지 주고받고 있는데 제대로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한국정부가 정말 이걸 그렇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해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지 이틀간 굉장히 제 마음에 걸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훈 교수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고하리) : 지금 질문이었던 거죠? 한번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인재육성 관련해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없으신가요? 가장 뒤에 계신 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 1996년도에 일본을 건너가서, 유학생으로 건너가서 학부와 대학원을 나오고 2004년도에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천경과라고 합니다. 아까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2001년도에 일본에서 제일한국유학생연합회라는 단체에 20대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신문에도 '5만명의 유학생'이라는 숫자를 썼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일본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학생들이 1만5천명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 50회 한일경제인회의 밑에 현수막에 걸려 있었던 캐치플레이즈가 '경제, 인재,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의 새로운 50년을 가져'라는 게 작년 한일경제인협회 회의의 캐치플레이즈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4개월 만에 우리 한일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가장 캐치플레이즈 했던 3개가 전혀 진전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일간에 서로가 일본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기업은 저도 유학생으로 가서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은 일본에 맞는 기업들, 여기 전부 CEO하고 큰 회사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상당히 지금 바라는 것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냐 라는 것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IT기술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문 기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일본어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다르게, 우리 한국에 있는 실업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을 보낼려고 하는 것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1만5천명의 일본이 좋아서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1만5천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물론 코리아의 대표이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 계신 경제인들도 1만5천명, 일본에 가 있어서, 물론 저는 좋아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취업과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아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한일협회 자체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 아니면 현지에 가있는 친구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석승 부회장과 전유미 대표님께서도 이러한 착안을 해서, 꼭 보내야만 되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만5천명이나. 그러한 어떤 제도와 이런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장(고하리) : 지금 말씀은 코멘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럼 질문이 지금 박재홍 선생님의 질문은 오쿠다 선생님께, 와카야 사장으로 부터는 이수훈 교수님께서, 그러면 오쿠다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쿠다 사토루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수출관리가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대상이 된 기업으로서는 좀 충격이 있다. 파급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왜 드러나지 않는가? 그걸 언급할 수 있는, 공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흔히들 말하기를 '한국은 좀 더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별로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피해는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판매를 하지 못한 제품을 제3국에서 팔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러면 여기에 판매하면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제안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 큰 힌트를 받았는데요. 베트남이 나왔습니다. 즉,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있고 일본기업도 많이 진출해있는 곳,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한국에서 많이 진출해있는 곳, 예를 들면 필리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얼핏 생각이 드는 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와카이 사장님 질문은 제가 교수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제가 팔로우 업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정부의 7월 1일자 조치, 또 8월 2일에 통과시킨 백색국가 제외조치, 이 두 조치가 한 세트인데, 이 조치는 저는 여전히 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가진 여러 가지 불만 등을 경제분야로 표출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정부가 계속 얘기한 것은 강제집행이 진행돼서 일본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현재 동결된 자산이죠. 지적재산권, 주식 이거에 대한 동결이 현금화될 때 이런 저런 대항조치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 정부에 계속 보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되기 전에 이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참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감정적이고 인식이 정확했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로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장비 이런 것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의존해 있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장(고하리) :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딱 40분이 되었는데요. 공동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인재교류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즈오카현립대학교수라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선택되었을 때가 정말 선택된 것이다'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하고 어려운 경험 고전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리 너를 선택하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지금 선택받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라, 라고 하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계속 '최악이다. 최악이다'라고 하는데 이 최악일 때 어떤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전에 모리야마 이사장님이 '비즈니스는 매우 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악인 때일수록 뭔가 행동을 일으켜야 되고 생각해서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2시간 이상 세션2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 : 제2세션 회의 진행을 맡아주신 고하리 스스무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양국 발표자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세션을 마치고 지금부터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폐회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폐회식 시작 전까지 모두 자리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폐회식



사회(서석승) :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내드립니다. 복도에 계신 대표단 혹시 계시면 폐막시간 늦지 않도록 안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김 윤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진행(김윤) :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측에서 다 함께 공동성명안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사무국에서 발표 후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국사무국에서 공동성명안을 각각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측 사무국을 대신해서 공동성명 한국어본을 먼저 낭독 드리고, 일본본은 일한경제협회 마에다 상무께서 낭독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51회 한일 경제인 회의 공동성명안]

「격동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9년 9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20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끼오 단장 등 106명이 참가하였다.

작년 5월, 도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기념비적인 제 50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후,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EU탈퇴(Brexit)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미중 통상마찰이 서플라이 체인의 연관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또한 중동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

크가 더한층 고조되어, 한일의 에너지 자원 수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면에서도, 문화·스포츠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안타깝게도 한일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우리는 그동안 양국 민관의 선배들이 쌓아온 호혜적, 상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 한일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경제교류의 유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확인했다.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 경제계는 미래지향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잠재적 성장력과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제 24일과 오늘 25일 양일간,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진지하게 미래지향의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했다.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입각하여,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경없는 협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 위해,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중추가 되는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와 비즈니스 환경이 상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민간의 입장에서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계의 신뢰관계와 양 국민의 원활한 왕래가 조성되도록 활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한일의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외교관

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에 의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은, 한일의 보다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에 관해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다 음 -

1.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의 지속적 추진
2.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개발 등에 관한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4.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한일의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5.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향한 협력

그리고, 다음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0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9년 9월 25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다음은 일본어 버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생략)

진행(김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성명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큰 박수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이 원안대로 승인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 진행을 사무국에 부탁드립니다.

사회(서석승) : 마지막 순서로 양국의 대표단을 이끌어주신 단장님들로부터 폐회인사말씀을 경청코자합

니다. 먼저 일본측 단장인 사사키 미끼오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단장(사사키) : 여러분, 이틀에 걸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외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3백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솔직한 논의와 정보, 의견 교환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5월에 개최하는 (안)이 9월 개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중단을 한다는 것은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양국의 경제인들이 축적해왔던 상호신뢰와 미래지향의 원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동기를 계속해서 가지고 유지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일경제협회에 김 윤 회장의 노고와 여러분의 열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양국의 경제, 인재, 문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의 교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경제인으로서 양국이 앞으로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에 갖는 기대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미래에 대한 과제와 실행 방향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개최식에는 바쁘신 가운데 한국측으로 부터는 산업통장자원부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손경식 회장님, 유명환 前 외교통상부 장관님, 일본측으로 부터는 나가미네 야스마스 주한일본특명전권대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국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야말로 저

회는 양국의 발전과 우호관계 재구축을 목표로 한국 경제인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국정부에는 양국의 청년, 청년기업인들의 교류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연을 해 주신 분들,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좌장, 발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내년 도쿄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만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더욱더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시다마는 이상으로 폐회 인사말씀을 같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서석승) : 이어서 한국측 단장이신 김 윤 회장의 마지막 폐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단장(김윤) :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제 폐회 식사까지 왔습니다. 일본측 단장이신 사사키 회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한일간 경제우호의 잠재력을 극대치까지 소통, 교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하고, 양국 경제인이 그 선두에 섰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명을 재확인하였다는 양국 경제인의 공통인식과 결의를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양국 경제인이 협력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념비적인 제50회 동경회의를 함께 축하하였고, 금번 제51회 회의로 백주년 행사의 첫 걸음을 딛었습니다.

양국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열린 금번 회의였기에 더욱 그 개최의 의미와 무게가 특별했다고 모두 느낍니다. 큰 활약을 해 주신 양국 발표자, 좌장께 감사드리며 양국 대표단 전원, 훌륭한 통역분들 그리고 협회,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일본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서석승) : 김 윤 단장님 감사합니다. 양국의 단장님으로부터 좌장, 발표자, 토론자, 질문자 그리고 모든 대표단께 감사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사무국의 요원으로서 장시간 회의를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끌 어주신 사사키 미끼오 회장님과 김 윤 단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역에 대한 고마움을 양측 단장께서 표시하셨습시다마는 저 뒤에서 이틀간 그 수많은 언어를 정확하게 통역해 주신 김혜원, 이정남 두 분 국제통역사께 큰 박수로 격려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나 잠시 후 10분 뒤에 에머랄드 룸에서 양국단장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만 양국대표단 여러분,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력해 준 호텔측과 모든 분들께 사무국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내년 일본에서 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 큰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IX.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사회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하 동일]

약수하는 장면을 먼저 촬영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요. 한가운데 서서 부탁드립니다.(사진촬영) 언론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어오셨는가요? 일본언론도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통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택된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폐막과 즈음하여 공동성명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모든 마스크 언론관계자들에게 배포가 되었는지요?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 사무국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예정해서 5시 즈음에서는 끝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순차통역이기 때문에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중간에 한번 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으로부터의 질문이니까 ‘이런 부분에만 국한해달라’는 강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의미 깊은 한일경제인회의가 어렵게 열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단장님도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공동성명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는데 소속과 성명 그리고 어느 단장님께 질문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앞줄에 기자분께서 먼저 손을 드신 것 같네요. 일단 소속, 성명, 그리고 어느 단장님께 질문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